

<2020-10 월호 기쁨언덕 인도자 소그룹 교재>

1 주 소그룹 모임본문: 예레미야 1 장 1-19 절

- 제 목: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새 528 장(통 318)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새 531 장(통 321 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새 500 장(통 258 장)
- 여는 질문: 당신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부르심(콜링)은 무엇입니까?

콜링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교사나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은 인생에 관한 콜링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또는 매일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콜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해

여러분은 [홀다]라는 여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이 홀다는 열왕기하 22 장과 역대하 34 장에만 소개되고 있는 여자 선지자로서 남유다 왕국의 말기인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은 누구냐?

열왕기하 23:25 절에 이 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과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리고 홀다는 요시아의 회개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홀다 선지자 메시지의 핵심은, “이제 너무 늦었다” 였습니다.

지난 55 여년간의 <므낫세>의 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피로 가득하고, 이 악함이 오래 유지되었기에 돌이키기에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을 받아서 그 남 유다땅 한복판에서 유다의 멸망을 직접 지켜보며 예언을 계속 이어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지막 멸망의 순간을 백성들과 함께 통곡하면서 맞이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 장이나 되는 예언서중에서도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서 전체에 애통과 눈물과 통곡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을 멈추지 않으신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한데요. 기승전-망

결과는 보나마나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지만, 앞으로 예레미야의 통곡의 울음 가운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 희망>을 찾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말씀속으로

1.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1:7-8)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은 무엇인가요? (11-14 절)

1) 살구나무 가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2)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에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가 떨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기독교(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소소한 일상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2.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 여년간이나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멸시를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약속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대하고 당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 암송구절: 예레미야 1:8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들어봅니다.

2 주 소그룹 모임본문: 예레미야 8 장 18-9 장 1 절

- 제 목: 어찌해야 합니까?
-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새 273 장(통 331 장)
나 행한 것 죄 뿐이니, 새 274 장(통 332 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새 278 장(통 336 장)
- 여는 질문: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사이에서 경험하는(했던) 고민과 갈등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미련이 있습니다. (물질, 권력, 자녀, 명예 등)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고 뒤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일, 고민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봅시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선택했을 때 경험했던 기쁨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본문 이해

유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이에 남유다와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해 포로로 잡혀 가게 될 것을 예언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8 절의 짧은 문장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는 지금 슬프고, 근심에 차 있으며,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거나, 오해나 비방으로 인해 억울하게 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때에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아픔이 나의 잘못이나 문제로 인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경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사용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에 가서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8:19-22)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유대나라도 바벨론 제국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애굽의 말을 들어야 할지 열강들 사이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 말씀속으로

1.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7 절)

- 1)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함
- 2)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함

2. 남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8-9 절)

- 1) 거짓의 붓이었다. (스스로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함)
- 2)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3.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0-12 절)

- 1)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함
- 2)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김
- 3) 가증스러운 일을 행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음

- 삶 속으로

1. 지금 여러분을 슬프고 근심하게 만드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짐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고 위로를 나누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2. 세상의 무엇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세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을 나 스스로 감추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드러내 보십시오.

드러내질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암송구절: 예레미야 8 장 21 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 자녀와의 나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을 말씀해보세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샘플이자 모델이 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부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모의 고백이, 자녀들에게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주 소그룹 모임본문: 예레미야 18 장 1-12 절

- 제 목: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 찬송가: 항상 진실케 (복음성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90 장(통 98 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새 375 장(통 421 장)
- 여는 질문: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이 분명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저는 그 순간을 Turning Point(터닝포인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때의 일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전에 경험했던 위기가 지금의 은혜와 축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로 인해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 본문 이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토기장이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 9 장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 롬 9:21-23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녹로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만들던 그릇이 그만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은 그것으로 다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뜻은, 한마디로 “나는 [토기장이] 이고 너희들은 [진흙]이다.”라는 것입니다.

토기는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만 그의 뜻대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긴 항아리의 모양으로 만들려고 시작한 토기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넓은 접시 모양의 토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길 밖에 머문다면 그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 렘 18:1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유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의 완악함은, 그 죄를 지적하고 폭로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할 정도로 그 끝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빛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 말씀속으로

1.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자신들은 진흙이라는 것을 유다백성들은 어떻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12 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2. 이스라엘의 죄악을 폭로한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8 절)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 삶 속으로

1.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은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순간 순간 나오는 예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아내/남편/자녀 등)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한 일을 후회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 다윗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고는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과 고백은 그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왕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암송구절: 예레미야 18:6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옳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기억이 있나요? 왜 그렇게 하게 되었나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또는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 행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큰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로 인해 우리는 좀 더 가까워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4 주 소그룹 모임본문: 예레미야 24 장 1-10 절

- 제 목: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 나무입니까?
- 찬송가: 먹보다도 더 검은, 새 423 장(통 213 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 463 장(통 518 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새 465 장(통 523 장)
- 여는 질문: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나 방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별하고 계신가요?

- 본문 이해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여호야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이고, 또 하나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광주리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무화과이고, 무엇이 나쁜 무화과일까요?

당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남 유다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고, 둘째는 여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당시 우방으로 여겨졌던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좋은 무화과는 애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을 말해야 하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은 무화과는 비록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곳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자들과 이집트로 도망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었던 좋고 나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셨던 포로 된 자들은 앞으로 치욕스러운
노예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들 눈에도, 우리 눈에도
그것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포로 된 자들이 그 고통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에 남아있는 이들이나 애굽으로 피난을 간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만 탓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분명 우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기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말씀속으로

1.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5-7 절, 8-10 절)

좋은 무화과 -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포로들

나쁜 무화과 - 유다와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땅에
거하는 자

2. 포로된 자들은 어떻게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6-7 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교만한 마음이 점점 사라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 삶 속으로

1. 여러분들은 문제를 자신에게 찾으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찾으십니까?

해결을 남에게 맡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여러 방법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2. 세상의 기준으로 '나쁜 무화과'였던 것이, 하나님에 의해 '좋은 무화과'가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일 수 있고, 세상에서 무익하다고 여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암송구절: 예레미야 24: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자녀와의 나눔

1.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 장 4-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사는 법을 알려주세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